

낙농육우 부문
발 체

축산분야 농업·농촌종합대책 〈세부추진계획(안)〉

2004. 6.

농 립 부
축 산 처

<젓 소>

- ◇ 생산유통소비 구조 개편을 통해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 도모
- ◇ 젓소 사육환경 및 원유의 품질·위생 개선

□ 집유 및 원유가격 결정체제를 개편하여 수급안정 도모

-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를 유업체·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
- 원유가도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·결정토록 개편 추진

□ 우유 소비 홍보, 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우유 소비 확대

- TV매체를 통한 홍보, 우유의 우수성 교과서 반영, 자조금 활성화 등으로 어리 때부터 우유먹는 습관을 형성 및 시유 소비기반 확대
- 치즈 등 국산유제품 개발로 시유중심의 소비패턴을 유제품으로 확대

□ 원유의 품질·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

- 용도별 구분집유를 통해 가공용과 시유용 품질·가격 차등화 정착
- 농가단위로 구분집유하여 상위등급은 시유로, 하위등급은 유제품으로 생산
- 깨끗한 목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목장 위생·환경 개선

□ 젓소개량,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으로 생산성 향상

- 산유능력검정 등 젓소개량과 양질의 조사료 급여 확대 등으로 산유량 제고 및 경제수명 연장
-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총체보리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

IV.2013년 우리 축산업의 비전

생산·소득 전망

- 축산업의 규모화가 계속되어 '13년에는 축산전업농 2만호가 사육의 85%를 담당할 전망 ('02년 13천호, 65%)
- 축산전업농의 평균소득은 규모화·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'02년 87백만원에서 '13년 108백만원으로 증가

<한 우>

- 전업농 9천호가 사육의 70%를 담당
- 송아지번식율은 77.6%에서 83%로, 평균체중은 593kg에서 610kg으로 늘어나고, 쇠고기 1등급 출현율은 60%까지 확대('02년 35.2%)
- 전업농 평균소득은 '02년 117백만원에서 '13년 154백만원으로 증가

<돼지>

- 전업농 4천호가 사육의 90%를 담당
- 이유두수는 20두에서 23두로 늘리고, 돼지 A등급 이상 출현율을 '13년 70%까지 확대('02년 38.8%)
- 전업농 평균소득은 '02년 100백만원에서 '13년 113백만원으로 증가

<닭>

- 전업농 2천호가 사육의 85%를 담당
- 닭고기 수출물량을 19천톤에서 60천톤으로 확대하고, 산란계의 산란율은 75.1%에서 78% 증가
- 전업농 평균소득은 육계는 67백만원에서 81백만원으로, 산란계는 68백만원에서 96백만원으로 증가

< 젓 소 >

전업농 5천호가 사육의 90%를 담당

- 두당 산유량은 7,071kg에서 8,000kg로 증가하고, 원유 체세포 1등급 비율은 50%까지 증가('02년 23.4%)
- 전업농 평균소득은 '02년 81백만원에서 '13년 97백만원으로 증가

유통구조

LPC가 중심이 되어 계열화 및 부분육·포장육 유통이 진전

- LPC 도축물량 : ('03) 소 8%, 돼지 16% → ('13) 25/30
- 계열화 : 돼지 ('02) 11% → ('13) 30, 육계 ('02) 70% → ('13) 85
- 부분육·포장육 유통비율
-('02) 쇠고기 18%, 돼지고기 30%, 닭고기 15% → ('13) 40/50/50%

고품질·고부가가치 축산물 중심으로 지역브랜드화가 촉진

- 한우 : 우수 브랜드가 전체 물량의 50% 수준을 차지
- 돼지 : 현재 52% 수준인 브랜드육이 전체의 70%까지 확대

친환경 축산

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시스템 구축,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등으로 환경 친화형 축산으로 전환

- 직불제를 통한 가축의 친환경 사육 비중을 축종별 사육의 30% 까지 확대하고 유기축산물도 전체의 1%까지 생산

1-1.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 황

- '03.6월 현재 축산물 브랜드 수는 700개로 매년 빠르게 증가
 - 상표등록 브랜드 수 : ('99) 194개소 → ('01) 342 → ('03.6) 428
 - 가축사육두수중 브랜드 경영체 비율 : 한우 18%, 돼지 40%, 육계 61
- 최근 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산
 - 도단위 지자체 중심의 특징 있는 광역브랜드 출현
 - 지자체(시·군), 협동조합, 농가 등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추진체 운영
- 돼지·닭의 경우 규모화된 브랜드경영체가 상당수 존재
 - 축산물 중 브랜드 유통물량은 닭고기가 약 95%로서 가장 높고 돼지고기는 52% 수준임

□ 문제점

- 우수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고 사양지침 등도 미비
 - 종축·사료·사양관리에서 가공·판매에 이르기 까지 농가 등이 지켜야 할 지침 등이 체계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
- 대부분의 브랜드경영체가 생산규모가 영세하여 안정적 물량공급이 어려움에 따라 대형유통업체 등 판매망 확보에 애로
- 대형 할인점 등에서 브랜드축산물 취급에 다소 소극적
 - 일부 선도적인 유통업체는 브랜드경영체와 장기적인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자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나 많은 유통업체는 아직 미온적
- 생산·재무관리 등 경영컨설팅이 주로 농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브랜드 주체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전무한 실정
- 브랜드축산물 품질은 일반 축산물에 비해 차이가 없는 반면 가격만 비싸다는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

2.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

- 축산물시장을 규모화된 대형유통업체가 주도하고, 고품질·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
 - 소비의 양극화로 고품질 축산물의 소비층과 중저가 축산물의 소비층이 분화되고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증가
- 수출국들의 국내소매시장의 공격적인 판촉활동 강화
 -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신선·위생을 컨셉으로 할인 및 적극적인 프로모션 추진
-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부응하고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경영체 조직을 규모화, 전문화하고 우수브랜드 위주의 생산·유통 강화
 - 광역단위의 브랜드 및 계열화에 의거 양축농가의 경영·소득보장
 - 브랜드화를 통한 원산지, 위생·안전성, 고품질 보장
 - 소포장 부분육 중심의 선진화된 유통구조로 발전

3. 세부추진내용

-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 중점 육성
 - 브랜드 주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·판매 관련 규약을 제정하고 농가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
 - 종축, 사료, 사양관리, 위생적 가공·판매 등 관련 규약 제정
 - 지자체는 지역대학, 연구소, 농업기술센터 등과 지역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기술·경영지원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
 - 산지 축산물 생산·유통 지원사업을 브랜드경영체에 집중 지원
 - '04년부터 조합경제활성화 지원을 줄이고 우수브랜드 육성 위주로 운용
 - ※ 조합경제활성화사업 지원은 연차적으로 감액하여 '06년부터 지원 중단

□ 전문화된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

- 농협중앙회에 브랜드컨설팅 전담기구 신설·운영('04~)
 - 컨설팅지원실을 확대 개편하여 브랜드지원팀을 신설하고 회원조합 등 지도
- 민간 브랜드컨설팅 전문업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확대
 - 사양, 경영, 브랜드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한 브랜드 전문 컨설팅업체 지정기준 제시('04)로 내실있는 컨설팅 도모
- 농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경영지침서 발간·보급('04)
 - 혈통관리·사료·사양관리에서 도축·가공·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세부적으로 제시
- 브랜드 경영 및 관리 자가진단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생산실태, 유통, 브랜드경쟁력, 마케팅 활동 등 경영자료를 자가 입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파악,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진단 수단 제공

□ 백화점·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연계체계 구축 지원

- 생산자 브랜드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매장 또는 가맹점을 통해 브랜드육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원료육 구매자금 지원
- 브랜드경영체와 대형유통업체 정례협의회 개최로 판로개척 지원
 - 브랜드 사업 초기부터 수요자(유통업체)의 요구사항을 파악토록 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체와의 컨센서스 형성 유도
- 장기계약 거래 등 브랜드육 판매 우수 유통업체에 정부시상 추진
- 백화점·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브랜드에 부분육 포장비 일부 보조지원 방안 강구

□ 우수 브랜드 축산물 판매 확대 지원(농협)

- 농협 유통(하나로클럽)에 생산자브랜드 축산물 판매코너 확대설치
 - ('03) 1개소(하나로 양재점) → ('04) 4개소
- 아파트 등 인구밀집 지역내 대형 브랜드축산물 전문판매장 개설
 - 농협 자체 자금으로 1개소 설치 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방안 강구

□ 우수 브랜드 인증제도 마련

-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우수 브랜드 요건을 정하고 브랜드를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
-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“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”를 설치하여 인증 추진
 - 브랜드 인증 지침을 제정하여 인증기준, 평가방법, 신청절차 등을 규정
 - 브랜드 인증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한 후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브랜드를 우수브랜드로 인증

□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양화

- 브랜드 활성화 심포지엄, 지역별 토론회 개최로 브랜드화 분위기 확산
 - 브랜드 발전방향 모색 및 정부의 브랜드정책 소개를 위한 심포지엄개최
 - 지역 토론회를 통해 브랜드 성공사례 소개, 우수브랜드로의 발전 방안 토의
- 우수 브랜드 홍보책자 발간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
 - TV기획프로, 일간지 기획기사 게재 등 입체적인 홍보 추진
- 농림부, 농협, 농산물종합쇼핑몰(A-peace) 등 농업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브랜드 소개코너 신설
- 유통단계·규모별 브랜드축산물 판매 및 소비동향 조사·분석

□ 축산물브랜드경진대회 및 전시회의 내실화

- 우수 브랜드에 대한 홍보, 소비자 인식제고 및 판로개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마련
- 우수 브랜드에 대한 시상금 상향조정 및 시상확대 추진
 - 우수브랜드 평가지침 및 경영지침서를 사전에 제공하고, 시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홍보비에 활용토록 추진

□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 도입

- 규모화된 우수 브랜드 중심으로 '04.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확대
 - ('04) 8개(40천두) → ('06) 12(60) → 16(80)

4. 추진일정

추진전략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	-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 수립 -브랜드경진대회 개최 -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 육성	-브랜드 컨설팅체계 구축	-수입육과 일반축산물과 차별화 된 브랜드 생산 및 고가 판매

1-2. 축산물 품질고급화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황

- 생산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특히 90년대 중반까지는 한우, 그 이후에는 돼지·우유의 생산액이 증가
 - '90 ~ '00년 생산액이 전체적으로는 39,214억원에는 80,824억원으로, 한우는 9,224억원에서 18,788억원으로, 돼지는 11,738억원에서 23,720억원으로, 우유는 6,377억원에서 13,51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
- 축산물 시장개방과 지속적인 생산기반 투·융자에 힘입어 농가 규모화·전업화가 진전
 - '04.3월 현재 한육우 전업농 사육비중은 32%, 양돈 73.8%, 젓소 63.8%, 육계 78.6%, 산란계 59.8%

□ 문제점

- 고품질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물브랜드화가 중요하나 일정한 물량의 고품질 브랜드는 미흡
 - 한우의 경우 전업농의 사육비중이 30%대로 영세규모 농가가 다수 차지
- 향후 DDA협상 이후 수입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품질차별화 전략이 필요

2.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

- 계열·브랜드 주체를 중심으로 '13년까지 경쟁력 있는 축산 전업농 2만호를 육성하여 사육의 85%수준을 담당하도록 하고 축종별 가축개량 사업을 통해 축산업 생산성을 개선
 - 한우 9천호(70%), 젓소 5천호(90%), 양돈 4천호(90%), 닭 2천호(85%)

3. 세부추진계획

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

- 지역축협 등이 중심이 되어 규모화된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이 생산·유통자금 지원
- 국내축산물의 백화점·할인점 등에 고가 판매전략 구축 및 수입산과의 품질차별화
- 전문화된 브랜드 컨설팅 체계 지원, 브랜드 축산물 판매지원,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, 브랜드 생산이력제 등을 추진

가축계열화

- 계열화업체 시설·운영자금 지원으로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 도모
- 계열화 참여율 확대 : 돼지 50%, 닭 85%, 오리 50%

가축개량사업

- 국가 가축개량 목표 설정 및 우량 종축검정·선발 및 계획교배 추진
- 가축 검정참여율을 50 ~ 60% 수준까지 확대
- 축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를 독립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제 도입

4. 추진일정

구 분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○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	-축산물브랜드육성대책 수립 -브랜드경진대회 개최	-지역단위 브랜드 경영체 육성 -브랜드컨설팅체계구축 -우수 브랜드 인증마크 부여	-수입육과 일반축산물과 차별화된 브랜드 생산 및 고가 판매
○가축계열화	-지원대상 확대 : 오리	-계열화참여율확대 : 돼지 30%, 닭 80%, 오리 30%	-계열화참여율확대 : 돼지 50%, 닭 85%, 오리 50 %
○ 가축개량	-가축검정참여율 : 24% ~ 49%	-가축검정참여율 : 40% ~ 50%	-가축검정참여율 : 60%

1-4. 품질고급화장려금(거세장려금)

1. 현황 및 문제점

- 농가의 거세장려 및 1등급 출현 유도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'00.7월부터 추진
 - 지원대상 : 국내 한우 및 육우 거세농가
 - 지원내용 : 시·군의 사업계획에 따라 농가 거세시 두당 10~20만원의 거세장려금 지급
 - 지급단가 : (한우) 20만원/두, (육우) 10만원/두
 - 지원조건 : 기금보조 90%, 지방비 10%
 - 지원실적 : ('00)64천두/93억원→('01)136/180→('02)119/157

- 큰소거세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'04.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이상 출현된 한우 거세우에 대해 지급
 - 지급단가 : 20~30만원, 지원기준 : 기금 전액보조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- DD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필요
 - DDA 차기협상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입쇠고기와의 경쟁에서 한우산업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시장차별화 필요
 -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을 통한 농가의 고급육 생산유도로 현재 35%수준인 1등급 출현율을 60%이상 확대 추진

3. 세부 추진내용

- 큰소거세 등 기존 거세자려금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세장려금은 '03.6월까지 지급하고 '04.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이상 출현된 거세우에 대해 장려금 지급
-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을 통한 1등급 출현율 상승
 - 1등급출현율 목표 : ('02) 35% → ('04) 40 → ('06) 50 → ('10) 60
 - 일정수준 1등급출현율 목표 달성시 연차적인 지급단가 축소를 통한 사업종료로 지급중단에 따른 농가충격완화 및 연착륙 유도
- 한우브랜드경영체와 연계, 거세고급육의 안정적인 생산 및 판로확보

4. 추진일정

구 분	1단계('04)	2단계('05 ~'08)	3단계('09 ~)
①지원대상조정	-1등급이상 출현된 거세우에 대해 지급		-한우사업추진체를 통한 1등급 거세우 출하시 지급검토
②1등급출현율 확대	-1등급출현율 40%	-1등급출현율 50%	-1등급출현율 60%

1-5. 가축개량사업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중장기 국가단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고 우량 종축검정·선발, 계획교배 등 체계적인 가축개량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

- 한우·젓소의 경우 축발기금에서 개량 및 검정, 정액보급 지원
 - 보증종모우를 선발, 우량 소 정액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
 - 한국형 보증종모우 선발(연간) : 한우 20두, 젓소 2~3두
 - 국내산 소 정액 공급계획 ('04) 1,560천str(한우 1,000, 젓소 560)
 - 가축 능력검정사업을 통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 이용
 - * 가축개량 관련 기금예산 : ('02) 283억원 → ('03) 276 → ('04P) 276

- 돼지·닭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종축개량 및 검정사업 실시
 - 업체수 : 종돈업 113개소, 정액처리업 58, 종계업 243, 부화업 199
 - 종돈업체수 : ('97) 117개소 → ('98) 89 → ('03.12)132
 - * 종돈 50두이상, 종계 1천수이상은 종축업은 시장·군수에 신고

《가축개량 주요 성과》

지 표	'95	'02	증 감
한우 18개월 체중(비거세)	491kg	512	4.3%
젓소산유량(305일)	5,836kg	→ 7,017	20.2
돼지 일당증체량	893g	895	0.2
산란계 연간산란수	286개	297	3.8

- 한우검정 참여율 낮고, 보증종모우 선발 신뢰도(한우 0.55, 젃소 0.80)가 낮아 개량효과 제고 필요
 - 부업규모 한우개량농가 등록우 이동관리 철저로 정확한 개량정보를 획득하여 유전평가 신뢰도 제고
-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저가로 정액을 공급함에 따라 결손이 누적되어 축발기금 부담 증가(결손액 : '01년 41억, '02년 60억, '03년 46억)
 - 소 정액 공급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저가 공급

〈'03 소 정액 생산원가 및 공급가격 비교(평균)〉

구 분	정액생산원가(A)	정액공급단가(B)	B/A
한 우	5,308 원/str	2,858	54 %
젃 소	11,299	4,722	42

- 축종별로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 혈통등록, 능력검정, 유전평가, 종축관리 분산
 - 가축검정 : 농협, 양돈·양계협회, 종축개량협회
 - 한우 : 당대검정 → 가축개량사업소, 후대검정 → 축산연
 - 돼지 : 검정소 검정 → 양돈협회, 농장검정 → 종축개량협회
 - 닭 : 양계협회
 - 종축등록 : 소·돼지·토끼 → 종축개량협회, 말 → 마사회
- 종돈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('99.1)된 이후 관리·감독에 어려움
 - 업체는 종돈 입식시 질병검사·예방접종 미시행, 민선 자치단체장은 행정처분에 소극적(과태료 부과 전무, 300만원이하)

2.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

- 중장기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확보

〈가축개량 목표〉

지 표	'02	목표('10)	순증△감
한우 18개월 체중(비거세)	512kg	610	19.1%
젖소산유량(305일)	7,017kg →	8,500	21.1
돼지 일당중체량	895kg	980	9.5
산란계 연간산란수	297개	303	2.0

- 가축능력검정 참여율을 높여 가축개량 촉진
 - 검정비 보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농가 자율사업으로 전환
- 국내산 소 정액 공급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고 종모우 능력에 따른 정액 차등가격제 도입 시행

3. 세부추진내용

(1) 한우개량농가의 등록우 및 축협조합 관리 내실화

- 한우능력검정에 소요되는 어미소 확보를 위한 관리두수·한우개량모집단 적정두수 유지 및 등록우관리 강화
 - 관리두수 조정 : ('03) 6개월령이상 140천두 → ('04) 12개월령 가임암소 120천두 → ('05) " 100천두(유지)
 - '04 조합관리비 지원대상 : 12개월령이상 가임 혈통·고등등록우
 - '04 조합관리비 지원단가 : 검정참여조합은 36천원/두, 미참여조합은 24천원/두로 차등 지원(농협 세부지침에 반영)
 - 12개월령이후 최초관리시(첫종부시) 농가방문 개체확인 및 디지털 사진 촬영·보관

- **검정 참여율의 연차적 확대** : ('03) 33% → ('10) 50%
 - 관리조합 전체 126개소 중 등록우관리 및 사업실적에 따라 **40개소(등록우 65천두)**를 검정 참여조합으로 선정
- 개체관리 정확성을 위해 동일 바코드귀표를 2조 장착 유도
 - 탈락시 관리조합 신고를 받아 동일 바코드번호 귀표를 공급
- 한우개량농가 조사사례비(관리비)는 조정하되 단계적으로 지자체에서 지방비 부담 조건으로 지원
 - **농가조사사례비 조정** : ('03) 혈통 60, 고등 80천원/두 → ('04) 혈통·고등50
 - 우량 등록우의 조기 도축 방지를 위해 **지자체에서 고등등록우에 한하여 조사사례비 추가지원 유도 : 10천원/두**
- 한우개량농가를 이용한 씨수소 및 고능력 암소선발체계 구축
 - **암소검정을 통한 한우 육종농가 집중관리**
 - 육종농가 : ('04) 20농가, 1,000두 → ('08목표) 100농가 6,000두
 - 대상농가 : 혈통·고등등록우 20두이상 사육하는 한우개량 농가로 계획교배에 의한 계절번식실시 농가
 - 암소검정 : 동기군 암송아지(5두이상)를 12~15개월령까지 사육하여 검정자료 조사 → 수송아지는 당대검정우로 제공
- 관리조합의 지도인력 육성 및 지자체 지도감독기능 강화
 - **관리조합 지도원의 업무 표준화로 등록우 관리 강화**
 - 관리조합 지도원의 자격기준 강화, 한우개량지도업무 매뉴얼·문서관리요령 작성 및 전산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업무효율성 제고
 - **가축개량 총괄기관(축산연) 및 시·군의 지도·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관리조합 및 등록우 관리**

□ 한우개량 초음파생체단층촬영 및 전산정보체계 보강

○ 한우개량 종합전산실 및 유전능력평가팀 설치·운영

- 가축개량사업소 : 개량정보의 수집·분산을 위한 전산실 운영
- 축산기술연구소 : 개량평가를 위한 유전능력평가팀 구성

○ 한우 초음파생체단층촬영자료 전문교육 실시

- 초음파생체단층촬영 기술보급·정착 및 개량정보 수집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(가축개량사업소)

(2) 젖소 산유능력검정 확대 및 수정란이식을 통한 개량촉진

□ 젖소 산유능력검정은 개량의욕이 높은 농가 중심으로 자율적 참여 확대

- 검정은 자부담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 참여 유도로 검정참여율 제고
 - ('03)140천두, 28억원 → ('04)140천두, 24억원
- 젖소 수정란이식의 시범추진으로 개량 효율화 : '04년 2개소

(3) 종돈업 등록제로 관리강화 및 종계검정 참여 확대

□ 종돈업의 등록제 전환('03.12.26)등 관리강화 및 품질향상 추진

○ 자유업인 종돈 50두미만 소규모 종돈업의 등록을 의무화

- '04.7.1부터 혈통증명(확인) 발급 시행 : 종축개량협회
- 시설·장비기준의 단계적 강화로 영세 종돈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유도

○ 물떼지 PSE 돈육발생을 방지하고, 품질향상을 위한 종돈의 PSS 유전자 검사 및 종돈검정 확대

- PSS검사지원 : ('03) 5천두, 43백만원 → ('04) 5천두, 43백만원
- 종돈장·검정소·AI센터 보유 종돈을 대상으로 PSS 검사
- 육량형질 이외 육질평가를 위한 검정기준 보완 및 검정사업 추진
 - 검정두수·참여율 : ('03) 41천두, 24% → ('10) 80천두, 50%
 - 종돈검정비 지원 : ('03) 140백만원 → ('04) 115백만원

□ 종계 경제능력검정의 내실화

○ 종계 경제능력검정은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면서 **원종계농장(GPS)·종계수입농장의 검정 참여 확대**

- 입식시 계군 검정실시함을 종계업등록자 준수사항으로 법제화
- 검정 GPS·종계수입농장수 : (현재) 12개소 → (목표) 20개소

○ 종계 검정요원 전문화, 검정방법 공정화 및 시설현대화 추진

- 검정요원 전문화 교육 : 24명(검정소 4, 농장 20)
- 검정시설현대화 지원 : ('03) 176백만원→ ('04) 127백만원

□ 중장기 가축개량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확보

〈가축개량 목표〉

지 표	'02	목표('10)	순증△감
한우 18개월 체중(비거세)	512kg	610	19.1%
젖소산유량(305일)	7,017kg →	8,500	21.1
돼지 일당중체량	895kg	980	9.5
산란계 연간산란수	297개	303	2.0

□ 가축능력검정 참여율을 높여 가축개량 촉진

○ 검정비 보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여 **농가 자율사업으로 전환**

□ 국내산 소 정액 공급가격을 점차 현실화하고 종모우 능력에 따른 정액 차등가격제 도입 시행

(4)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조정 및 운영개선('04말)

□ 가축개량사업소를 포함한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조정 및 운영개선 마련

○ 축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를 독립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제 도입

-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정액대를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경영수지 균형 유지
- 인건비를 사업비의 20% 이내 유지, 경비절감 및 정액공급가 현실화
- 축종별 종축등록 및 검정기관이 다수로 분산된 가축개량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가축개량추진의 효율성 제고

(5) 가축개량총괄기관의 기능 및 시도(시군) 역할 강화

- 가축개량 총괄기관(축산연) 및 地自體의 지도·감독 기능 강화
- 등록업체의 종축생산 및 질병관리 이행 점검 의무화
 - 업체에 대한 정기 확인검사 철저히 질병관리 강화

4. 추진일정

추진전략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〈가축개량〉			
○ 한우 18개월 체중	550kg	590	610
○ 젖소산유량(305일)	7,720kg	8,240	8,500
○ 돼지일당 증체량	956kg	972	980
○ 산란계 연간 산란수	297개	300	303
〈가축개량〉			
○ 한우	33%	40	50
○ 젖소산유량	55%	57	60
○ 돼지일당	41%	45	50

2-10. 축산업 등록제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도입배경

- 선진축산의 전제요건인 **가축질병 방역**,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**환경보전**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**축산업등록제 도입**
 - 농장위치, 약품·분뇨·사료차량 이동경로 등 방역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질병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 실시
 - 축산물 이력추적을 위해서는 개체 등록 및 농장등록이 필수적
 - 친환경축산직불제, 축산물브랜드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
- 세계 각국은 축산분뇨에 의한 **환경부담 증가**, 구제역·광우병 등 **가축질병 발생** 등으로 **친환경축산**을 위한 **기반강화** 추세
 - **네덜란드**는 농가별 분뇨발생 허용량 제한, **벨기에**는 농가별 사육두수 상한제정, **프랑스**는 대규모 농장허가제 운영

□ 주요내용

- **종축업, 부화업, 계란집하업** 및 **가축사육시설면적 소·닭 300㎡, 돼지 50㎡** 초과 농가는 시장·군수에게 등록
 - 가축사육업은 '05.12.26까지, 계란집하업은 '04.6.26까지 등록
 - 축산업자에게 **고유번호**를 부여하여 농가정보 등을 체계적 관리
- 가축사육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·장비기준 없이 **현재상태 그대로**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
 - 가축사육시설이 통풍이 잘되거나, 환기시설을 갖추면 됨
- 적정숫자 이상 **가축 밀집사육 금지**('07. 1. 1. 시행)

□ 축산업 등록 활성화를 위한 농가 등 교육·홍보 실시

- 농가, 시·군, 축협, 유업체 등 담당자 (10회) 및 지역 순회교육(2회)
- 리후렛(22만부), 전문지 기획기사(7회)·광고(7회)게재 등
- ※ '04.6.24일 현재 등록대상 3만여호 중 1,367호 등록
- 종축업 186호, 부화업 117, 계란집하업 14, 한육우 400, 젖소 146, 돼지, 297, 닭 207

□ 문제점

- 축산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였으나, 일부 농가는 등록시 부담이 큰 것으로 잘못 인식
- 일부 농가는 '10년까지 등록제시행 유예를 주장하며 반대서명
- 시·군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등록지연 우려

2.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

-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 도입 불가피
- 축산업이 자율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선진축산을 지향한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음
- 가축사육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·장비기준 없이 축사면적, 사육두수 등을 현재상태 그대로 등록하면 되며 추가 부담이 없음
- 소독설비와 분뇨처리시설 구비여부를 확인않고 등록 가능
- 앞으로 농가들이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에 대해·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
- 대대적인 농가홍보실시, 미등록농가 정책사업 지원대상 제외 등 등록촉진대책을 마련, 내년말까지 축산업등록 완료 추진

3. 세부추진내용

- 축산업등록 촉진대책 수립·시행
 - 등록제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**대대적 홍보** 실시
 - 설명서한 발송, 기획기사·광고 및 반상회보 게재 등
 - 조사료생산, 인공수정기술 등 모든 교육시 홍보실시
 - 등록촉진대책반을 구성, **상시 점검·지원체계** 구축
 - 농림부, 시·도, 농협중앙회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
 - 월별·축종별 등록목표 설정, 점검회의 및 현장점검 등 실시
 - 미등록농가는 각종 정책사업의 **지원대상에서 제외**방안 검토
 - 관련 생산자단체에 등록제 홍보실적에 따라 비용 지원(교육교재, 리후렛, 전문지 광고비 등, '05년 100백만원)
 - 등록추진 유공자 **해외선진지 시찰** 및 장관표창 실시(40명)
 - 시·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**시·군별 전산보조인력** 지원 (181명, '05년 1년만 지원, 국비 50%, 지방비50%)

4. 추진일정

추진전략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○위생·방역강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	○부화업·종축업, 계란 집하업 등록완료	○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완료	-

2-11.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생산자 중심의 양적확대 위주의 축산에서 소비자·국민과 함께 하고,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으로 변화 필요
- 축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으나 가축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, 축산 분뇨 처리미흡 등으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 축산을 하지 않고서는 축산업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- DDA 협상을 앞두고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 등 축산분야에 있어 직접지불제 확충 필요
- 농가에서 친환경 축산업을 경영하는데는 상당한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므로 관행적인 가축생산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직불제 도입 필요
- 친환경 축산을 통해 발생하는 농촌 경관향상, 환경부담 경감 등은 축산 농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다음 세대가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편익(Social Benefit)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
- 시범사업('04~'05) 실시후 그 결과를 평가, 보완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
- 2013년까지 축산업 등록 농가중 30%이상 참여유도
- 유기축산 수혜농가에 대한 추가 직불 검토

3. 세부추진내용

< 기본방향 >

- ◆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참여
- ◆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참여(준수)하는 농가의 소득감소분(또는 추가비용)에 대하여 일부 지원

□ 시범사업을 통한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정착

<지급요건 및 기준>

- 기본 프로그램 이행 : 1,300만원/호 한도내 지급
-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 : 200만원/호 한도내 추가 지급

(인센티브만 참여불가)

	세부요건	직불금 지급기준
기본 프로그램	(한옥우젓소) ① 조사료포 확보 (처리기준면적 60%이상) ② 발생된 분뇨의 60%이상 사료포 환원	○ { (처리기준면적 ~ 확보필요면적) -농가평균보유면적} ×570원/평 * 소득차(10a당)=171,500원 (쌀-사료작물)
	(돼지닭) ① 분뇨발생량 감축 (사료밀도를 등록제 기준대비 20~30% 완화) ② 발생 분뇨를 퇴·액비로 판매, 농 지공급 등 처리	○ { 등록제와 직불제 사육밀도차 (20% ~ 30%)} ×두당소득×50% -두당소득 : 돼지 50천원, 닭 1.5 * '04 지급소득 : 돼지 40천원, 닭 1.2
	(공통 부대요건) ①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 ②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③ 환경방역관련 교육 이수	
인센티브	①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 등 식재관리	○조경수 구입비용 (30천원/이루이내)×50%

< 지급요건 위반시 제재기준 >

- 위반사실 발생횟수에 따라 규제
 - 1회 : 시정지시 및 직불금 20%감액, 2회 : 사업취소
 - 축산분뇨처리(오분법)·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(가축전염병예방법), 항생제 사용(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) 등

- 친환경축산시스템 정착을 위해 추진계획을 단기·중기·장기로 시기를 나누어 기반확립단계('04~'05), 발전단계('06~'08), 정착 단계('09~'13)의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
 - 기반확립단계('04~'05)는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보완
 - 직불제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('04. 6~12)
 - 친환경축산직불제 참여농가에 대한 시장우대 방안 마련('04.12)
 - 발전단계('06~'08)는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이행평가 보완
 - 축산농가 영농장부 작성과 병행하여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이행평가 및 세부프로그램 보완
 - 정착단계('09~'13)는 친환경축산업 시스템으로 전환과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추진

- 동물복지,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마련('09~)
 - EU 등 축산선진국의 동물복지, 조방화 등 직접지불제 추진 사례 분석 연구용역 실시
 -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, 조방화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 마련

4. 추진일정

추진전략	1단계('04~5)	2단계('06~'08)	3단계('09~'13)
①사업계획수립	-사업계획수립 -시범사업추진 -시범사업 성과분석 및 연구용역실시	-이행평가 및 세부 프로그램 보완 -직불제 등 다양화 검토	-동물복지 조방화등 직접지불제도입방안 마련
②사업추진	-시범사업 성과분석	-사례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	-참여율확대

2-12.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황

- 축산분뇨발생량은 연간 49백만톤('02년도, 1일 135톤)으로 축종별 구성비는 돼지 57%, 젓소 19%, 한우 15%, 닭 9%임
 -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58천 농가중 57천 농가(97%)가 설치를 완료하였음(지원액 9,644억원, '91~'03년)
 - 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”에 근거하여 우리부와 환경부가 축산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 협조하고 있음
 - 지원체계 : 농림부-신고규모이상 농가에게 처리시설지원 및 기술지도
환경부-지자체 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신고미만농가의 분뇨처리
- ※신고대상축사면적 : 돼지 50㎡이상, 한우·젓소 100㎡이상, 닭 150㎡이상

□ 문제점

- 축분처리시설 및 기계·장비의 조기 노후화로 고장·가동 중단 등 일부 관리 부실
 - 특히, 돼지의 슬러리 축분은 수분함량이 95% 이상으로 처리에 애로
 - 톱밥으로 처리된 축분퇴비 가격이 비싸 생산된 퇴비 판매 부진
 - 퇴비수요의 계절적 편중에 따른 판매의 어려움으로 재고누적
 - 퇴비가격이 높고, 살포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에서 사용기피(화학비료의 4배)
- ※ 10a당 시용량 : 화학비료 50kg(13천원), 축분퇴비 500kg(50천원)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□ 전망

- 축산폐수의 해양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축산폐수의 해양배출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정화처리 요구 증가

※ 축산폐수 해양배출량 : ('97) 52천톤 → ('00) 765 → ('02) 1,626

□ 추진방향

-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지원 지속 추진
 - 축분퇴비 판매가격차손 보전,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자금 지속 지원, 축분액비의 수요확대를 위한 축분비료센터 운영 주체 활성화 지원, 축산분뇨의 자원화 기술개발연구 등
-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연계한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시스템 마련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
 - 경종농가 작목반과 연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·이용 활성화
-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와 연계한 적정사육두수 유도
 - 가축사육밀도제한, 조사료재배면적확대, 목장환경·위생 개선 등
- 4대강 및 새만금 수계지역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지도·단속 강화
 -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, 정화처리 최대 억제,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 등

3. 세부 추진내용

□ 자연순환형 축산분뇨처리 방안 수립

- 축산분뇨처리 방안 수립을 위한 현지 조사 및 대책 수립
 - 환경부와 T/F팀을 구성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

□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

-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신규 및 보완 자금 지원 확대
 -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: ('91-'03) 9,644억원 → ('04) 402
- 축분퇴비판매가격 차손보전 확대로 경종농가 퇴비사용 유도
 - ('99-'02) 700억원(200만톤) → ('03) 210(60) → ('13) 675(150)

□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축분퇴비·액비 이용 지원

- 축분퇴비용 수분조절제 제조시설 설치 지원 확대
 - 경종농가 작목반과 연계한 축산분뇨 액비화 이용 활성화 지원 확대
 - 액비저장조 지원 : ('01-'02) 552기 → ('03) 682 → ('04) 800
 - 축분비료유통센터설치 : ('03) 35개소 → ('04) 5
- ※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관리 지침 시달 및 교육 실시

□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연계한 적정 사육두수 유도

-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에 “가축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” 조항 설정
 - 적정사육두수 유도로 가축분뇨 발생량 억제
- 지역별 축산분뇨총량제 추진 검토
 - 경지면적에 비례한 축분퇴비 이용가능량 설정
 - 축산분뇨총량 초과지역에 대해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정책 자금 지원 제한 등

-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 - 축산분뇨의 친환경적 처리로 자원순환형 축산기반 구축

□ 축산분뇨처리 신기술 개발 보급 및 기술교육 강화

- 축산분뇨의 자원화 처리방법·이용, 악취저감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지원
- 축산분뇨 자원화·정화처리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 강화

4. 추진일정

구 분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분퇴비백비저장조 설치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'01-'02) 552기 → ('03) 682 → ('04) 800 ○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 : 402억원 ※ 설치율 : 98% ○ 축분퇴비판매가격 차손 보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비 : 210억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업등록제및 친환경축산직불제와 연계한 가축사육 두수 제한 ○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설치율목표 : 99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분뇨처리시설 신규 및 보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설치율 : 98%

2-13.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연간 조사료 수요량은 4,200천톤으로 이중 850천톤(20%)을 수입
 - 초지·사료작물재배 : 137천 ha(초지 47, 사료작물 90)
 - 목·건초 1,346천톤, 볏짚·산야초 2,000, 수입 850
- 축산농가는 이용이 편리한 수입 조사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인력·장비 부족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을 기피
 - 사료작물재배지 확보가 어렵고, 조사료 생산 기계·장비는 연간 사용일수(30일)가 적어 장비구입시 농가자금 부담이 가중
-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촉진 및 조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
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영농조합법인, 협업체, 연결체, 축협조합 등
 - 지원대상 : 초지조성 및 보완, 사료작물재배, 볏짚처리, 기계·장비 등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- 남는 논·밭에 사료작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친환경 경축산을 유도하고, 축산물생산비 절감 및 수입조사료 대체 필요
 -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
 -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채벼·보리 생산 확대로 국내 조사료 생산확대

3. 세부 추진내용

- 남는 논·밭 등 농경지에 하계 및 동계 사료작물 재배
 - 종자·비료 현물지원, 지역별 적합한 종자공급 및 기술지도
- 경종농가와 연계한 총채보리 생산·이용 활성화
 - 연차별 계획 : ('02) 859ha→('03) 2,681→('05) 3,000→('10) 5,000
- 조사료 생산·이용 활성화
 - 연차별 계획 : ('03) 20set→('04) 50→('05) 70→('10) 100
- 벧짚 암모니아 처리 및 생벧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추진
 - 암모니아 가스 주입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시 비닐 공급

4. 추진일정

구 분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① 조사료 급여 비율 확대	-급여 비율 : 45%	- 급여 비율 : 50%	- 급여 비율 : 60%
② 총채보리재배면적 확대	-재배면적 2,000 ha	-재배면적: 3,000 ha	-재배면적: 3,500 ha
③ 사료작물재배량 확대	- 사료작물 재배량 : 110천톤	- 사료작물 재배량 : 127천톤	- 사료작물 재배량 : 150천톤

4-16. 가축질병 방역대책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황

- 종전에는 토착형 일반질병만 발생하였으나 '00년 이후 교역증가로 인수공통전염병과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 유입되어 대책이 시급함
 - 구제역('00년 최초, '02년 재발) 4,400억원, 가금인플루엔자('03년) 1,500억원 사슴만성소모성질병('02년), 돼지콜레라('02년 재발) 518억원 피해
- * 탄저에 걸린 쇠고기를 먹고 1명('94)·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 5명 사망, 부루세라에 걸린 쇠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12명 감염('03)

□ 문제점

- 중국·몽고 등과 인접, 교류확대로 해외 병원체 유입 증가
- 축산농가·단체 등 민간부문의 축사소독·차단방역 등 방역조치 소홀
-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주도 방역추진에 대한 의존 경향 심화

2.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

- DDA 등 여건변화에 따라 질병 청정화가 어려울 경우 중국·남미 등에서 동·축산물 수입허용 압력(동등성 요구)에 협상의 폭이 좁아져 해외악성전염병의 유입 경로가 더욱 다양화
-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증대되는 반면, 축산업 위기 의식으로 투자, 방역 소홀로 여건은 한층 불안정해질 전망

□ 추진방향

-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제 사전 구축 및 가축사육환경 개선
- 악성가축질병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
- 농가와 지자체의 소독·예찰 등 자율 차단방역 강화

3. 세부 추진내용 (과제별 추진계획 : 덧붙임 참조)

□ 인수공통전염병 대응체제 구축

- 광우병, 한우 부루세라병 등 질병별 대책 추진
-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 차단을 위한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

□ 가축질병발생 사전 차단

○ 건강한 가축 사육 환경 조성

- 축산업등록제 정착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밀도 완화 추진
- 가축 밀집사육 지역 특별관리 및 분산 유도

○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활동 강화

- 공·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 및 홍보강화
- 악성전염병 발생국 여행 축산농가·현지 축산경영자 중점관리
- 탐지견 투입확대 등으로 질병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집중 검역·검색
- 검역검사대 추가확보 및 복지부 검역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객 휴대품 개봉 검사 확대

○ 농가들의 소독 등 방역의식 고취 및 자율방역 강화

-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 등 상시 예찰체제 구축으로 의심축 조기 색출
- 농장 소독시설 설치기준 및 소독방법 등 구체화 및 농가교육 강화
- 농장의 외국인 고용실태 정기적 파악 및 피고용인 대상 교육·관리 강화

○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

- 방역 추진실적 등을 평가, 정책자금 지원 차등화 및 공표
- “전국일제소독의 날” 마을 “공동방재단” 운영 내실화 및 시·군별 “지역방역협의회(농협·협회등 참여)”를 통한 민간방역 활성화
- 사료·분뇨·차량 등 출입경로를 사전에 파악, D/B화 추진
- 살처분보상금 등의 지방비 부담확대로 지자체 방역 책임감 고취

○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특별방역관리 및 폐사축 관리 강화

- 폐사축은 소각로나 렌더링 열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폐사축을 불법처리하거나 가축에 급여한 자(농가)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
- 폐사축 수거·운반시스템 구축 및 소각시설 등 설치·운영 지원

□ 발생시 초동방역 및 종식 후 사후관리 강화

○ 발생시 초동방역체계 강화

- 발생 농가 사람·차량 등 이동통제, 소독 등 관리 강화
- 역학 조사 등 초동대응체계 보완

○ 종식 및 발생지역 사후관리 강화

- 매몰지 정기점검, 인근 지역 수질 검사 등 사후관리 철저

4. 추진일정

구 분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○소부루세라병최소화	-검사증명서미첨부 소 의 가축시장거래금지 -관련 규정 제개정	-검사인력 확보(81명)	-발병 최소화
○광우병 예방 -검사강화 -사료안전 관리 지원 -홍보 -검사시설 지원 -연구시설 -검사인력 확보 -신속검사키트 -축산물검사관수의사 -SRM처리	-2,200두 검사 -분석장비: 800백만원 -제조라인구분: - -사료추적관리70백만원 -매년 110백만원 -9개소(300백만원/개소) -도축장시설보수: - -SRM소각비용: -	-3,000두 검사('05) -1,000백만원 -30개소(3,000백만원/개소) -매년 110백만원 -11개소 -1개소(연면적 1,500평) -44명 -매년 30만두분 -117명 확보 -10개소(10억/개소당) -년간 5,400백만원	-5,000두 검사('06부터) -검토 -검토 -검토 -매년 110백만원 -검토 -검토 -검토 -검토 -검토 -검토
○가금인플루엔자방역	-1,500억원	-매년 2,000백만원	-매년 2,000백만원
○구제역 등 각종 질병 방역	-47,412백만원	-매년 50,000백만원	-매년 10,000백만원
○밀집지역 농장 이전	-농장당: -	-2,000~3,000백만원/농가 -철거비15백만원/개소당	-2,000~3,000백만원/농가 -철거비15백만원/개소당
○국경검역 -홍보, 탐지견 운용, 검사, 전문가 양성 등	-	-매년 20억원	-매년 30억원
○폐사축관리	-폐사축 처리시설: -	-100백만원(개소당)	-100백만원(개소당)
① 방역본부 운영강화	-8도본부38출장소175명 가축방역업무중심	-9본부 40출장소 190명 위생검사업무추가	-9본부 44출장소 200명 방역위생업무정착

6-22. 축산 자조금활동자금 사업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이 제정·공포('02.5.13) 됨으로써
의무자조금제의법적근거 마련 및 시행령·시행규칙 공포('02.11.14)
 - '92년부터 임의자조금을 추진하였으나 강제성이 없어 참여 미흡
- 축산단체에서 농가로부터 일정액을 거출받아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, 정부는 조성액의 100%범위 이내에서 보조 지원
 -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시 농가는 의무적으로 거출금 납부
(납부거부시 도축업자는 도축 거부)
-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,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상호협약하여 공동으로 설치
 - 대상 축종 : 소·돼지·닭 등 14개 축종
- 한우·육계는 의무 자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 협회와 농협이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대의원 선출을 준비중임
 - 양돈은 '04.4월부터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실시중이며
 - 낙농분야는 낙농육우협회에서 임의자조금사업 추진계획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- 민간자율수급조절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구축 필요
 - 생산자 자율적으로 수급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자조활동사업 확대
- 관련업계 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
 - 대상축종확대 : ('03) 4개 축종 → ('13) 10개 축종

3. 세부추진내용

□ 원활한 사업 추진 유도

- 자조금활동자금의 운영취지를 감안하여 공동추진시 **단체간 협조 및 원활한 협의 유도**
 - 축산단체간 의무자조금 미합의시 해당축종 생산자단체 중심 임의 자조금 추진 유도

□ 생산자단체중심의 자조활동사업 품목 확대

- 의무자조금 대상축종 확대 :('04)양돈→('05~)양돈, 한우, 낙농, 육계 등
- 기타 축종도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및 소비기반 확보 유도

□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검토

- 의무자조금 시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 - 관련기관 및 단체 의견수렴(6월)
 -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 작성(7~8월)
 -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추진
- 자조활동사업 시행 과정을 점검하여 제도개선 등 보완 추진
 - 주관단체선정, 의무자조금구성여부 찬반결정 및 운영방법 등
 -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및 보완

4. 추진일정

추진전략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①임의자조금	-사업계획 수립 -소요예산확보	-축종확대(꿀벌사슴 등) -일부 축종 의무자조금 사업으로 전환	-축종확대 및 정착
②임의자조금	-주요 축종 실시 -제도개선 -대의원선출 등 준비	-의무자조금사업 정착	-의무자조금사업 정착

6-23.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 황

-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**낙농진흥회와 일반유업체**에서 전량 집유
 - **진흥회**는 집유조합 등을 통해 원유를 집유하여 유업체에 계약을 통해 공급하고, 나머지는 분유로 제조·판매
 - 일반유업체는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직접 집유
- 낙농진흥회 참여 농가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**이사회**에서 결정
 - * 가격산출 : 기본가격(502원) + 체세포 5등급 + 세균수 5등급 + 유지방울 15등급
 - 일반유업체는 낙농가대표와 협의하여 자율 결정(진흥회 가격 준용)
- 원유기본가격은 유지하되, **잉여원유에 대한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하**
 - ① '02.11.1 이후 :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**전량집유 및 전량 높은 가격 보장**
 - ② '02.11.1 이후 : **잉여원유 차등가격제 시행**
 - 기준원유량(유업체 계약량) 정상유대(620원) + 기준원유량의 6% 정상유대 + 기준원유량11% 정상유대70%(434원) + 초과량은 수입가격(200원)
 - * 일반유업체 : 평균 9% 수준의 감산목표를 설정하고, 초과량에 대해 정상유대의 50% 또는 분유 지급
 - ③ '03.7.16 : **원유 생산감축대책 시행**
 - 농가별 9% 감산하여 감축후생산목표량 부여(잉여원유 차등가격) + 감축후 생산목표 초과량(분유 지급)

□ 문제점

- '98년 기본가격 결정후 생산비가 5% 이상 변동하였으나, **낙농가의 반대로 한번도 조정하지 못함**(평균가격 620원/kg, 생산비 445원)
- 유지방 등급간 가격차가 커서 불필요하게 생산비가 증가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- 시유는 유통문제 등으로 경쟁력이 있으나, 유제품은 생산비가 높아 DDA 이후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
- 원유가격결정시스템을 시장수급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
 - 원유 집유체계의 직결체제 전환시 합리적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탄력적 원유가격 적용 도모

3. 세부 추진내용

- 낙농가와 유업체의 직결체제 전환을 통해 수급조절체계의 효율성 제고
 -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공론화 추진 및 의견수렴
 -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개최, 낙농가 및 유업체 대표와 간담회 개최 등
 - 직결체제 전환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(낙농가, 유업체, 집유조합 등) 합의가 도출되는 대로 집유선 전환
 - 근거리 공장 원칙에 의해 집유선을 조정, 진흥회 물량(농가)를 일괄 이관 추진
 - 계약공급량을 초과하는 이관물량에 대하여는 유업체에 일정기간 차액보전
- 원유가격은 생산자(또는 조직)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
 - 원유 직결체제 추진과 병행하여 수급상황에 따라 유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원유가격 결정산식 개발

-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이해 당사자간 합의시스템 구축
 - 낙농가, 유업체, 학계,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 구성·운영
 - 전년도 기준가격과 생산비 변동수준 및 경제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조정안 도출
 - 조정안을 토대로 낙농가 및 유업체가 합의안을 도출토록 유도
 - 합의안이 일정기간(30일)내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협의체의 중재안으로 자동결정

□ 체세포·세균수·유지방 등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으로 유질 개선 및 위생수준 제고

- 체세포 하위등급(4,5등급)에 대한 패널티 강화
- 세균수 하위등급(3,4등급)에 대한 패널티 강화
- 유지방률 구간 및 구간간 가격차 축소 조정
 - 현행 15개등급 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(15→10→5→3)
 - 유지방의 가격비중을 낮추고 등급구간간 가격차 축소 조정
 - 유지방에서 제외된 가격효과를 체세포 상위등급에 반영

4.추진일정

구 분	1단계('04)	2단계('05 ~'08)	3단계('09 ~)
○원유가격결정시스템 개선	○ 원유직결체제전환 추진 ○원유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 검토	○체세포·세균수·유지방 등 원유가격산정 체계개선	

6-24. 학교우유 급식

1. 현황 및 문제점

□ 현 황

- 학교우유급식은 청소년의 체위향상과 우유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'81년부터 축산발전기금으로 보조지원
- 초·중·고등학생의 절반수준인 3,969천명이 자부담 및 보조 급식
- 보조급식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210천명에게 정부지원 무상 급식
* 백색우유 단가 235원/200ml, 연간 300일 기준(유상 180일)
- 우유급식량 : 1일 794톤(보조42, 유상752), 연간 148천톤(보조13, 유상135)
- 시중가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(시판 360원/개 의 65% 수준)

<학교우유급식 실시현황>

(단위 천명)

구분	계	초등학교	중학교	고등학교	특수학교
전체학생수	7,792	4,164	1,859	1,746	23
급식 인원수	3,969	3,294	395	264	16
비율(%)	50.9	79.1	21.2	15.1	71.8

□ 문제점

- 학교우유 급식율이 초등학교는 높으나, 중·고등학교는 매우 저조
- 초등학교(210천명)에게만 보조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중·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실시 필요
- 학교우유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백색시유보다 가공유를 선호하는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□ 앞으로의 전망

- 우유는 단백질, 칼슘,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위 향상에 꼭 필요한 제품임
- 그러나, 학생들의 우유 소비 기피 및 탄산음료, 두유 등 대체 음료의 소비증가 등으로 우유소비는 정체 또는 감소 전망

□ 추진방향

- 청소년·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의 우수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
-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유년기에 우유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다각적인 대책 강구
-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대한 지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, 중·고교 중식비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토록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 추진

3. 세부 추진내용

- 농협중앙회,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우유 소비촉진 홍보 적극 추진
 - 인기연예인, 스포츠스타를 활용한 TV(라디오) 공익광고 지속 추진
 - 우유 다큐멘터리 제작·방영(3부작), 114 안내전화, 버스·지하철 등 대중교통, 우유테마 콘서트, 여성낙농가 홍보요원 교육, 전시회·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소비자 관심 유도
- 초·중·고 교과서에 우유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우유소비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 강구
 - 초·중·고 교과서 집필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추진

- 현장체험 대상자를 지역 영양사 등으로 연차적으로 확대
 - * 방학 등을 이용, 2~3일간, 목자·유가공 공장견학, 설명회 등 현장 체험
 - 교사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사이버 홍보자료 제공하여 교육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
 - * 관련 사이트 : 멀티 클래스(t.multiclass.co.kr), 티-나라, 에듀 포 유 등
 - 초·중·고 교과서 반영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·분석용역 실시
 - *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조사·분석하여 새로운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 추진
- 저소득층 초등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급식을 중·고교 학생까지 확대토록 지원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 추진
- 초등학교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급식을 중·고교 기초 생활 수급자(급식비지원대상자)에 확대, 지원하는 방안 강구
 - * ('04) 210천명 → ('05) 297(중학생 69) → ('06이후) 352(고등학생 73)

4.추진일정

구 분	1단계('04)	2단계('04 ~'08)	3단계('09 ~)
학교우유급식	○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소비홍보로 우유급식을 향상 -초중고 우유 급식율 : 52%	○교과과정에 우유교육 내용수록.이벤트 등 소비홍보 강화 -초중고 우유 급식율 : 55%	○ 저소득층 중고생으로 급식확대 -초중고 우유 급식율 : 60%

6-25. 축산물 소비홍보

1. 현황 및 문제점

- 매년 일정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전단, 포스터제작 · 배포 및 소비촉진시식회, 세미나 개최
- 가격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 · 임시적 · 단편적인 홍보실시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 기능 미흡

2.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

- 소비자단체에 축산물 소비행사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장기적인 소비기반 구축
 - 소비자단체와의 협력사업 위주 추진
- 가능한 정부 직접 홍보를 지양하고 축산자조금 지원단체를 통해 자조금으로 추진토록 단계적으로 방향 전환

3. 세부추진내용 : 소비자단체 등과 체계적인 소비홍보 협조 체제구축

- 안전식생활 교육 등
- HACCP 적용업체 축산물 이용 캠페인 등
- 우리축산물 홍보 교육 등
- 축산물구입 · 소비형태와 육류구분방법 등 교육
- 축산시책 홍보전단, 포스터 제작 · 배포 및 신문광고 등

4. 추진일정

추진전략	1단계('04)	2단계('05 ~'08)	3단계('09 ~)
○소비자단체 협력사업강화 및 소비홍보사업자조금사업으로 전환	○소비자단체 협력사업추진 ○자조금 사업전환 추진	○사업정착	○사업정착

6-26. 가축공제사업

1. 현황 및 문제점

- 재해와 사고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'97년부터 추진
 - 대상축종 : 소(한우, 젃소, 육우), 말, 돼지, 닭
 - 보장내용 :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에 의한 폐사, 부상 등의 손해에 대해 시가의 80%~100% 보상
 - 납입공제료 : 농가부담 50%, 보조지원 50%(송아지는 60%)
- 최근 재해발생 증가로 공제에 대한 농가 인식이 개선되어 가입 증가
 - '03년 가입실적 : 2,138만두, 115억원 지원
 - * 축종별 가입율('03) : 소 7.0%, 돼지 43.4, 닭 17.4, 말 3.8
 - 금년도에는 가입두수를 확대(3,384만두, 144억원)하여 확대 추진중
- 돼지콜레라 등 법정 전염병, 소득 및 생산비 보장성 상품 등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 요구 증가 추세

2. 앞으로의 전망과 추진방향

- DDA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를 위하여 양축농가의 경영·소득안정 장치 구축 필요
 - 농가에 대한 생산기반 지원은 점차 축소(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)
 - 경영위험분산 등 경영·소득안정을 위한 접근 필요
 - ※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WTO허용보조에 해당되는 재해보험 제도를 세계 각국이 강화하는 추세

3. 세부 추진내용

□ 다양한 상품개발 및 보장범위 확대로 가입 확대

- 사슴, 양봉, 꿩 등 기타가축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가입 수요를 조사하여 가입대상 축종 다양화
- 안정적인 경영 유도를 위한 생산비 보장보험 등 다양한 상품 개발로 보장범위 확대

□ 경제체제 도입 및 재원의 효율적 활용

- 농협중앙회의 민간보험사 참여 유도로 활성화 도모
- 공제상품별, 축종별 특성 등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차등

□ 농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강화 및 서비스 강화

- 사업주관기관(농협)의 사전 질병예방활동을 통해 사고위험 분산 등 부가서비스를 확대

4. 추진일정

추진전략	1단계('04)	2단계('05 ~ '08)	3단계('09 ~)
①공제상품개발	-가입월령조정(3→2)	-대상축종합대 (사슴,꿩 등)	-질병, 생산비보장 등 상품개발
②임의자조금	-무료진료 등 서비스 강화	-상품별 보조율 차등 -민간보험사 참여	-보조율 년차적 감축
③가입율확대	-가입율 15%이상	-가입율 30%이상	-가입율 60%이상